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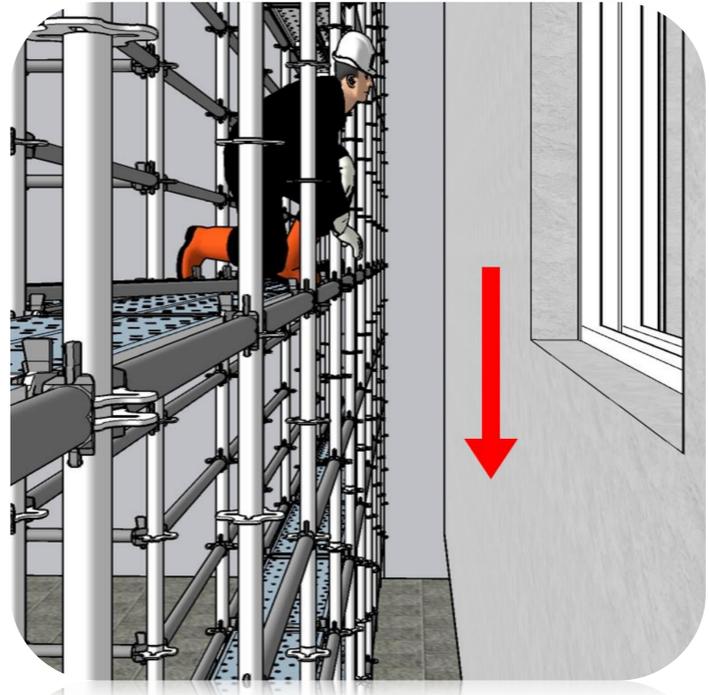
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추락



재해개요

2023. 03. 00.(월) 09:30경 경남 창원시 소재
 OO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장 현장에서
 재해자가 6층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위에서
 건물 외벽 견출*작업 상태를 확인하는 중
 외벽과 시스템비계와의 틈 사이(약 50cm)로
 빠지면서 약 1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
 떨어져 사망함

* 건축구조물의 콘크리트벽 내·외부의 미관을
 좋게 하기 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작업



발생원인

▶ 근본적 추락 원인

- (안전난간) 시스템비계 내측에 상부·중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
- (추락방호망) 건물 외벽과 시스템비계 틈 사이(약 50cm)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
- (안전대) 시스템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할 위험이 있으나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음

예방대책

1 시스템비계 내측에 안전난간 설치

- 비계 내·외측에는 상부 난간대, 중간난간대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

2 「추락방호망」 등의 추락방지시설 설치

- 비계 설치 시 건물 외벽과 비계 틈 사이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후 작업 실시

3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

-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- 작업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